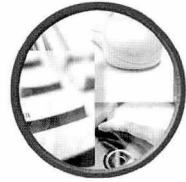


SPECIAL. I

e-Business의 강력한 도구 ASP

- ASP 활성화정책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 / 단희수 사무관



1. 중소기업의 e-Business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이 중심이 된 지식정보 혁명은 전세계의 경제환경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정보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 개인의 삶의 모습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구조, 절차, 비즈니스 모델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정보화와 함께 따라오는 세계화는 경쟁의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여 무한경쟁의 경제환경을 만들었다. 즉 모든 기업은 전세계 동종 기업과 경쟁해야하며 자신들의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을 만족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된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양방향 멀티미디어의 등장은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경제 시스템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옮겨 놓았고 또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창조하였다. 이제 모든 기업은 생산성 강화를 위한 내부업무의 정보화를 넘어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해야만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민간 분야의 IT산업 활성화와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전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했으며 40%가 넘는 가정에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여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제는 인터넷이 국민의 삶 속에 하나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더불어 IT산업의 성장으로 2000년 IT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산업의 약 13%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핵심적 영역으로 대두하였다.

그러나 눈을 돌려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지식기반경제 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아직 정보화의 물결에 동참하지 못했음이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모습은 아직 산업사회의 기업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IT분야의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진출을 통해 정보화 물결에 동참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정보화 마인드, 자본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환경이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국가사회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의 실현에 있다면 우리경제의 저변을 구성하는 전통산업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IT산업의 발전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전통산업과 IT산업은 상호연관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야만 국가 경제의 전반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야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

2. ASP와 중소기업의 e-Business

우선 e-Business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생산비용을 낮추거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구매, 생산, 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인터넷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e-Business인 것이다.

그러면,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e-Business를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수요에 대응하여 산업시대의 아웃소싱 개념을 인터넷 기반 위로 옮긴 ASP산업이 등장하였다.

ASP는 전통산업의 정보화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보화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전통산업은 “어플리케이션 임대”라는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IT 아웃소싱 활용해 기업정보화를 지원받고, 기업은 핵심업무에만 전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기업 내부업무의 효율화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마케팅·고객관리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지 않고 ASP전문업체의 솔루션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음으로 전산실 설치·유지·관리 등의 부담없이 양질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SP산업은 국가경제의 e-Transformation을 지원하고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반을 제공하는 연관효과가 큰 인터넷 산업으로 대두하고 있다.

ASP산업은 전통산업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정보화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IT산업 자체의 발전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IT산업의 총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룩한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지원하는 산업은 결국 우리가 희망하는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혜택이 고르게 보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정부의 ASP 활성화 정책

ASP 산업은 IT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고 효과적으로 IT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으나, ASP에 대한 신뢰 부족, ASP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생존력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ASP를 통해 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기존 산업구조와 가치사슬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ASP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정보화가



효율적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ASP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ASP 산업은 아직 도입기로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약 300여개 기업이 사업부 단위 또는 전사적으로 A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0년 ASP 시장규모가 6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 기업의 ASP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ASP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우선 국내 ASP 산업이 대부분 200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수요기업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성공 모델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0여개 이상의 성공사례가 필요하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한 보안,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수요 기업의 인식도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ASP산업의 육성과 기업정보화 자원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분야에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ASP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 확보에 주력한다.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IT화 추진이 가능한 ASP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에 대한 이용기업의 불신이 가장 큰 이유이기에 정부, ASP 사업자, Off-Line 기업이 협력하여 ASP를 통한 성공적인 IT화 추진 사례를 개발, 홍보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ASP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한다.

둘째, ASP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1회성 지원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기에 업종 또는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ASP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협업 환경 구축에 주력함으로써 ASP 산업의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민간의 창의적인 ASP 모델 개발을 유도한다.

대상 업종, 사업 모델 등을 미리 제한하는 것보다는 각 업종별, 기업 관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ASP 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상 업종 및 사업 모델을 검토·지원할 것이다.

넷째,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 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부에서는 ASP 서비스 도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Off-line 단체, 기업과 ASP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시범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정부의 ASP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의 구체적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민간의 창의력을 토대로 다양한 ASP서비스 성공모델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대상업종을 자유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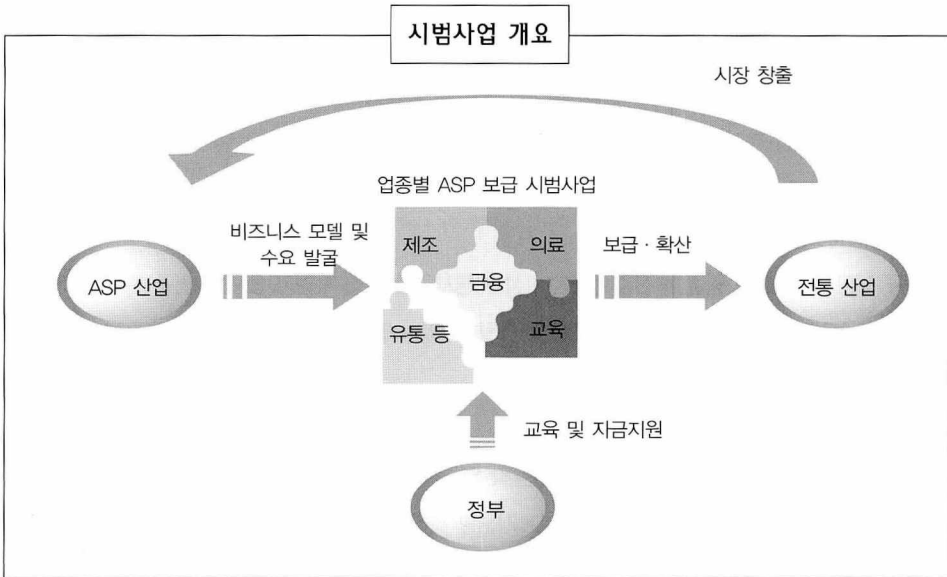
모 ASP 시범사업 대상업종 선정한다.

Off-Line 업종 단체 또는 기업이 ASP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신청하되, ASP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병행할 것이다.

대상 업종은 정보화 수준 및 추진의지, 시범사업 계획, ASP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 보안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는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으나 동일 업종 또는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간 협업 환경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서비스 예시 : 그룹웨어, 경영관리 S/W, ERP, SCM, CRM, e-commerce, 시스템 관리, 지불 서비스, Mail & Directory 서비스, e-learning 등)

그 다음 실행은 정부, ASP 사업자, Off-Line 단체 및 기업간 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정부에서는 ASP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축단계에서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지원한다.



4. 맺음말

지식기반경제 환경에서 모든 경제 주체는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생산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된다.

IT는 이제 IT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통산업 또한 도입하고 체화해야 할 과제가 된 것이다.



“click-and-mortar”란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가 전통산업이 확보한 생산력 기반 위에 IT를 접목하여 산업연관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ASP산업이 전통산업의 e-Business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이 기업생존의 필수전략임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지원업무인 정보시스템은 IT 전문업체에 아웃소싱하고 기업은 핵심업무에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ASP는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산업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다.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의 틈새를 찾아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인터넷 신산업이기에 탄탄한 기술력, 반짝이는 아이디어, 장기적인 비전,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고루 갖추어야만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아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대두되는 MSP, EIP, ASP 등 인터넷 신산업이 마음놓고 시장에 뿌리를 내려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양제공을 위해서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개선, M&A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한 간접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하에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정세의 영향과, 구조조정 지연, 금융시장의 장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역할은 전통산업과 IT산업 모두의 몫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21세기 지식기반경제 환경에 우리경제가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때다.

멋진 스포츠 경기는 좋은 운동장, 엄격한 규칙, 공정한 심판, 훌륭한 선수, 열광적인 관중이 있을 때 가능하듯이 경제활동도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활성화될 것이다.

정부는 젊은 인터넷 기업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훌륭한 경기장·엄격한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 국민은 애정 어린 관심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우리의 인터넷 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